

전남 중부권

해양수산과학원 제구실 못한다

<구 어촌지도소>

지소·센터 통제 안돼 비리 부작용 등 어민들 불편

지역별 특화사업 차질… 지자체 직영 전환 목소리

전남도 산하 해양수산과학원(구 어촌지도소)이 불합리한 기구체제로 운영되며 전해 제 구실을 못해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지자체 직속기관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어업인들의 해양·수산기술 보급지도와 지역특화산업 연구분야를 다루는 기관으로 현재 본원 산하에 8개 시·군 지소와 6개 센터 등 14개 기구로 편성돼 있다.

이와 같은 해양수산과학원 기구편제는 지난해 5월 국가적인 수산진흥원 소속 일선 어촌지도소내 지도직과 연구직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켜 도 산하로 편입하면서 일반 지방직 수산직과 통합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과학원은 도지사 지휘를 받는 직속기관 기능이 아닌 도청 해양수산국 업무 풍체제를 받으면서 일선 소사업소(지소)를 관광하는 '사업소내 사업소'로 예산집행은 물론 사업발주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선 지소와 센터에 대해 업무주관 관리 등 독립적인 지휘·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선 지소와 센터의 지역별 특화사업 연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은 물론 일선 지소 근무자들의 사기저하와 기강해이로 인한 비리만원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과학원 J지소 관계 공무원들이 어업인들에게 지금해야 할 연구비를 빼돌린 뒤 유형비와 회식비로 써 무더기로 사법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해양수산 관계자들은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양수산부원도 지자체로 이관 직속기관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991년 6월 국립 수산진흥원 시·군 어촌지도소로 출발해 1997년 해양수산청 지도소로 개편된 데 이어 수산기술관리소로 재개편하는 등 총 10차례로 걸쳐 명칭이 변경되는 수난을 겪어 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나락 말리는 농심

최근 강진군 군동면 회방마을 도로변에서 한 주민이 벼를 말리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쌀값이 하락하며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환경산단 분양 활기

입주 희망률 122%

강진군이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강진 환경산업단지'의 분양을 원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 환경산업단지의 분양 희망률이 122%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최근 전남도의 산업 단지 명칭 브랜드화 정책에 따라 기존 '강진 성전 일반산업단지'에서 '강진 환경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까지 양해각서(MOU) 체결 등 입주 희망업체는 20개에 분양 희망면

적 54만3300㎡로 나타났다. 강진 환경산업단지의 총 분양면적은 44만 5000㎡이다. 군은 국내 산업박람회 연 7회 참가를 비롯해 홍보물 제작 발송, 언론매체 홍보, 업체 수시방문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로 보고 있다.

군과 전남도개발공사는 공영개발(公營開發)하는 강진환경산업단지는 오는 2014년까지 5329㎡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략사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군은 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되면



4000억원의 생산증대 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창출, 30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7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인 칠량 농공단지와 함께 강진 환경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강진군이 중남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지역출신 작가 초청 '길위의 인문학' 인기

장흥 공공도서관

장흥 공공도서관이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 공공도서관은 최근 지역출신 작가인 이대희 시인을 초청해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대희 시인은 독자들과 소설

'청행'의 배경인 장흥댐과 보림사를 탐방하며 문학 전반에서 지역 방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통해 문학의 근원인 언어와 토속어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장흥 공공도서관은 다문화가정 한글교실과 인형극 공연, 시낭송 음악회 등 '장흥 문학기행특구' 상장성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한편 '길위의 인문학 사업'은 장흥 공공도서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자체 경연 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저자들의 자취가 깃들어 있는 현장을 전문가와 독자가 함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세계 흙 건축가들 슬로시티 창평에 모인다

11~14일 유네스코 컨퍼런스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에 세계의 흙건축가들이 모여 축제의장을 연다.

담양군은 "오는 11일부터 14일 까지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에서 아시아 최초로 '2011 유네스코 국제 흙건축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네스코와 네

트워크를 구축한 협력기관 한국흙 건축연구회(목포대 건축학과 흙건축 연구실) 도움을 받아 담양 창평 슬로시티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관련 업계는 "나주시와의 이번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의 경우 전체 6명 직원의 국민연금 등 보험료가 7개월이나 미납된 부실한 업체다"며

"나주시와의 이번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는 일명 로또를 거머쥐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근본적으로 직접 생

산능력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희의혹을 피해갈 수가 없다"며 "관내 업체가 3곳이나 있는

데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몰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비롯한 납품실적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문제는 없어서 계약을 했다"며

"타업체를 통해서도 일부를 수의계약했으며 지방계약법상 전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11억원대 '제진기' 수의 계약의 경우 당초 설계 예정가격의 85%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 같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설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쌀 생산비 보장하라

나주시의회 건의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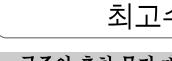
나주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공공 비축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건의안을 민장임치로 제택했다.

임연화(민주노총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쌀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로 100만t 이상 매입할 경우 ▲2009년산과 2011년산 쌀 생산 연도를 표기해 판매할 것 ▲국가수매제 도입과 쌀생산비 보상을 받기 위한 농민단체와 정부와의 쌀값 협상이 끝날 때까지 수매일정 연기할 것 ▲나주시와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물가·생산비 인상을 반영해 증액할 것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임 의원은 "정부가 올 봄부터 2010년산 공공 비축미를 방출하고 최근에는 2009년산 공공 비축미까지 반값에 대량 공급하다 보니 쌀값 폭락하는 등 부정유동이 판을 치고 있어 결국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농민을 도외시한 식량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즉각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부동산 경매, 유동화 지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시화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담양(운전)	신안[3층스포츠센터]	수기동[12층관호호텔]	통영동[근린시설]	통영동[3층상가주택]	월산동[3층상가건물]	능성동[장비식당]
대83527㎡, 건10821㎡, 김정가 156억 원, 최저가 87억 원	대926㎡, 건25984㎡, 김정가 69억 원, 최저가 52억 원	대923㎡, 건7588㎡, 김정가 74억 원, 최저가 59억 원	대536㎡, 건1593㎡, 김정가 12억 원, 최저가 9억 원	대98㎡, 건335㎡, 김정가 3억 원, 최저가 2억 원	대64㎡, 건255㎡, 김정가 6억 원, 최저가 3억 원	대1374㎡, 건327㎡, 김정가 28억 원, 최저가 12억 원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용봉동[하이스포츠센터]	목포오동[방문원]	광주오동[공장]	해남[땅끝큰도]
대4076㎡, 건12943㎡, 김정가 51억 원, 매매가 160억 원(시설비별도)	대7867㎡, 건2510평, 김정가 15억 원, 매매가 17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대8797㎡, 건8797평, 김정가 15억 원, 매매가 17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대2284평, 건2654평, 김정가 83억 원, 매매가 92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

전주[의약물센터]

대4112평, 건1749평, 김정가 85억 원, 매매가 60억 원(지역기여금의 충족여부)